

순천시, ‘한국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순천 매산등 포함 전국 8개 유적 근대기 선교사 활동 내일 순천대서 학술대회…체계적 보존·관리 등 모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순천을 포함한 전국 8개 선교기지유적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에 적극 나선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26일 순천대학교에서 순천 매산등을 비롯한 전국 8개 선교기지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학술적으로 규명하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순천시와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원장 강성호)이 공동 주관하며, 각 지역에 분포한 선교기지유적의 공통된 가치와 특성을 살펴보고, 향후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매산등 일대

서만철 한국선교유적연구회 회장의 ‘한국 선교기지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순천 매산등 선교유

적의 특징, 세계유산 등재 추진 전략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및 관계 전문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매산등 선교유적에 대한 지속적인 학술조사와 보존·활용 기반을 구축해 한국 선교기지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향한 발걸음을 단계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순훈모 순천시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 8개 선교기지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며 “순천시는 매산등 선교유적의 가치를 규명하고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원도심 근현대역사문화공간 조성과 연계해 시민과 방문객이 그 가치를 함께 향유

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으로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 매산등을 포함한 전국 8개 선교기지유적은 근대기 선교사들이 일정한 지역에 정착해 교회·학교·병원·선교사 주택 등을 조성하고 선교·교육·의료·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했던 공간이다.

특히 개별 건축물에 그치지 않고 교회·학교·병원·주거시설 등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 한국 근대기 선교 활동의 전개와 지역사회의 변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역사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곡성, 축제 넘어 산업화 추진…‘장미’로 미래 먹거리 그린다

군, 장미 자원 가치 재조명 ‘시장성 검증’ 중간 보고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지역 대표 자원인 ‘장미’를 축제와 관광의 영역을 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장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곡성군은 최근 관계 부서 공무원과 용역 수행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미산업화 시장성 검증 및 실행전략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곡성이 보유한 장미 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소비 흐름을 분석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장미산업화 방향과 실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군은 장미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시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장미축제와 관광자원 등 곡성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곡성형 장미산업화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보고회에서는 국내외 장미산업 동향과 소비자 수요 분석, 관련 사례 및 곡성군의 장미산업화 여건 등을 공유하고, 향후 장미산업의 발전 방향과 단계적인 추진 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지역 대표 자원인 ‘장미’를 축제와 관광의 영역을 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장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청

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단계적인 사업 발굴보다는 장미가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역적 특성과 기존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로 16회를 맞은 ‘곡성세계장미축제’를 통해 장미를 지역 대표 관광브랜드로 성장시켜 온 만큼, 그동안 축적된 인지도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장미의 가치를 지역 전반으로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장미 하면 곡성’이라는 지역 브랜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곡성의 장미는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중요한 지역 자산이다”며 “장미가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

특산물 원목표고 활용 ‘장흥샌드’ 상품화 속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장흥 뽕배용Zip서 판매 예정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장흥 대표 특산물인 원목표고를 활용한 지역 특화빵 ‘장흥샌드’의 제조기술 보급과 상품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구원은 최근 지역 제과·외식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장흥 특화빵 기술교육’을 열고 ‘장흥샌드’ 제조기술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의 상품화·마케팅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교육은 장흥의 특색을 담은 지역 특화빵의 제조 역량을 높이고, 개발된 제

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매 및 홍보 전략까지 함께 다루는 실무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연구원이 자체 개발해 특허 출원한 ‘표고 정교’ 제조기술을 교육에 포함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원목표고를 활용한 가공기술을 직접 전수함으로써 표고버섯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지역 특화빵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원은 옛 장흥교도소를 문화·관광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뽕배용Zip 내 ‘감옥당’ 카페에서 이색적인 콘셉트와 연계해 ‘장흥샌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특화빵을 정식 출시하고 판매할 예정이다.

또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역 제과·외식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특화빵의 제조 및 판매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흥샌드가 장흥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맛보고 싶은 지역 대표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구례 섬진강수달생태공원 물놀이장 ‘호응’

전년비 이용객 15.6% ↑…가족 관광지 자리매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섬진강수달생태공원 물놀이장에 6000여명이 다녀가며 대표적인 여름철 가족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24일 구례군에 따르면 여름철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시원한 휴식과 생태 체험을 제공한 ‘2026년도 섬진강수달생태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을 최근 마무리했다.

올해 물놀이장 이용객은 총 6046명으로 전년(5230명) 대비 15.6% 증가했다. 특히 타 지역 방문객 비율이 86%에 달해, 섬진강수달생태공원이 외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대표 관광지 자리잡았다.

올해는 단순한 물놀이에 그치지 않고 미꾸라지 잡기와 생태놀이 등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물놀이의 수달 관람, 생태체험을 한

곳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콘텐츠가 이용객 증가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운영기간 동안 안전요원 2명을 상시 배치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그늘막·피크닉 테이블 운영과 사위장 신설 등을 통해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대폭 강화했다.

장길선 군수는 “올해는 안전요원 상시 배치와 사위장 신설, 휴게시설 확충 등 안전하고 편리한 운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며 “특히 물놀이와 수달 관람을 동시에 즐기는 수달생태공원의 차별성이 관광객 증가를 이끈 만큼, 앞으로도 계절별 체험 콘텐츠를 지속 확충해 사계절 내내 가족이 찾는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이민구 기자 mingu9942@



광양, 민선 9기 공약·재정진단 청사진 제시

광양대전환위원회 활동백서 공개…“시민 체감 집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운영된 광양대전환위원회 활동과 정책 제안을 담은 민선 9기 광양대전환위원회 활동백서를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백서는 광양대전환위원회의 활동 결과뿐만 아니라 민선 9기 시정의 정책 방향과 공약, 재정진단, 조직혁신 등 주요 검토 결과까지 충실히 담아 기록물로 완성했다.

백서에는 광양시 재정진단 및 건전화 방안, 민선 9기 시정 비전, 광양 커넥트 의 생활SOC·AI절단도시), 공약 검토·실천 계획, 조직혁신과 AI 기반 업무혁신 등이 담겼다.

부록에는 광양대전환위원회 활동일지, 시정현황 및 주요현안 보고 결과, 행정혁신 통합전략, 공약 및 위원 제안, 시민 제

안 등을 수록해 인수위원회의 활동과 정책 검토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백서는 특히 민선 9기 시정의 ‘출발점’을 기록하고,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과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백서에 담긴 정책 방향과 제안이 실제 시정으로 이어지도록 공약 실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각종 정책사업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광양대전환위원회의 활동은 민선 9기의 출발점에서 광양의 현재를 진단하고 시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었다”며 “백서에 담긴 내용이 단순한 기록으로 남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보성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내달 11일까지 9개 분야 접수

보성군장학재단은 9월 11일까지 지역 인재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장학생’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하반기에는 총 362명을 선발해 2억936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선발 분야는 성적 우수 116명, 미래인재 9명, 보금자리 61명, 한울타리 94명, 행복동지 15명 등 총 9개 분야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이버대학 장학금을 새롭게 신설한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학업을 이어가는 교육 기회를 넓히고, 전문 직업 역량과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해당 분야는 5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친권자가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다. 대학생은 학업을 위해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부모가 보성군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이후 자격요건과 분야별 기준에 따른 1차 심사를 거쳐 보성군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장학금은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보성=임태형 기자 linth66@gwangnam.co.kr

고흥, 나라사랑·공동체 의식 함양

태극기 부채·키링만들기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최근 꿈꾸는예술터에서 초등학교 70여명을 대상으로 ‘보훈단체와 함께하는 태극기 부채·키링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태극기의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을 연계한 참여형 활동으로 마련됐다.

특히 보훈단체인 고흥군재향군인회 여성회와 함께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고, 아동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여 학생들은 태극기 부채와 키링을 직접 만들어 보며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아이들이 태극기의 의미를 단순히 지식으로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고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국가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배우고 건강한 군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